

단 面

“인생은 단편(면)일 때
더 선명하다.”

이 마엘

Spec'ory

COPYRIGHT © LEE MAEL, 2025 All rights reserved.
Planning & Editorial Design LEE MAEL
Published on: July 20, 2025
Email ekgm131@icloud.com Instagram @dlakdpf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스펙토리와 이마엘 작가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 본 소설 내용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실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면 단편 소설집

“인생은 단편(면)일 때 더 선명하다.”

이 마엘 지음

서문,
인생은 단편(면)일 때 더 선명하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이 선명한 것은,
인생의 단면이다.

그땐 아픔만 선명했지만,
지금은 그 곁에 따라, 빛도 스며들고,
온기도 갖는다.

잘라낸 상처의 옆면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지나간 무늬처럼
살아내려는 의지가 층층이 쌓여 있다.

그러나 다시 아플까 두려워,
인생을 접지 말 것,
그 단면마다 너는 분명 살아 있었다.

목 차

종이집 - 종이 한 장의 증명.

첩 - 지워진 집의 기록.

오늘 살아 있다 - 매일.

양파 - 울 줄도 모르면서요.

난 익사 중 - 넌 말해, 물을

좋아요를 위한 장례식

이름 잃을 별 - 기록되지 못한 죽음도,
독립을 만들었다.

『종이집』 - 종이 한 장의 증명

종이로 만든 가족을 꺼내 마주한
크리스마스 이브.
불려본 적 없는 이름 ‘이소’를,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불렀다.

prolog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나는 종이로 된 가족을 꺼냈다. 엄마는 세 명 있었고, 나, 아빠는 두 명이 있었다. 단 한 명도 내 이름을 끝까지 기억한 사람은 없었다.

종이 인형은 오래 전 복지관 만들기 교실에서 배운 방식대로 잘려 있었다.

흰도화지,
검은 사인펜,
색연필.

엄마1은 핑크색 원피스를 입었고, 엄마2는 눈썹이 없었다. 엄마3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어차피 다시 버릴 거 였으니까.

그중 하나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종이는 죽어있었지만,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였고, 이내 말을했다.

“너, 우리 딸이었니?”

1장, 종이 위에 쓰인 집.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싱크대 옆 타일은
처음부터 금이 가있었다. 이 집은 ‘임시주택’이었
다.

보호종료아동 1년 차,
정착지원 프로그램.

6개월짜리 계약,
딱 거기까지의 가족,
딱 거기까지의 집,

지금은 크리스마스이브 밤 10시.

옆방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아침 짐을 뺐다.

한 명은 취업,
한 명은 퇴소,
한 명은 도망.

이소는 혼자 남았다.

전기장판은 바닥에서 조금씩 열을 올리고 있었다. 라면 하나 끓일까하다 포기했다. 라면 냄새는 혼자 먹기엔 너무 무거운 온기였다. 대신 박스를 꺼냈다. 얇은 종이로 만든, 오래 전 가족놀이의 잔해.

<엄마1>, <엄마2>, <엄마3>, <아빠1>, <동생1(없었지만 만들어둔)>, 그리고 <나>.

이 인형을 마주 앉혀 놓고, 이소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벽장에서 ‘툭-!’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소는 고개를 돌렸다. 그 곳엔 종이 인형 중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엄마2>였다.

얼굴에 눈썹이 없던 사람.

2장,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이름.

“너 기억하니?”

가장 먼저 말을 시작한 건 <엄마1>이었다. 이소는 그 종이인형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분홍 원피스, 항상 웃고 있었던 얼굴.

“너 내 딸이었니?”

엄마1은 매일 같이 말했다.

“우리 소~”

“예빠 죽겠어.”

“예빠서, 말 잘 들어서!!”

“귀엽게 굴어서~”

임시 보호 계약 종료 3일 전, 엄마1은 이소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제 긴 머리는 안 어울려..”

“다른 데 가면 불편해..”

그리고 마지막 날엔, 아무 말 없이 보내 버렸다. 고개도, 이름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이소는 인형을 내려 놓았다. 종이 위에 접힌 선이 눈에 밟혔다. 마치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다 찢어질 직전의 종이처럼.

다음은 <엄마2>. 눈썹이 없는 얼굴.

“넌 특별한 아이였다고.”

“내가 말했잖니~”

엄마2는 종종 선물도 사주었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엔 이소의 이름이 없었다.

“우리 후원자님들께 보낼 사진이니까~”

“예쁘게 웃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엄마2는 어디

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소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쪽 이름은, 나도 몰라요.”

한 장, 또 한 장, 종이인형들을 차례로 눌렀다.

숨 쉬는 것처럼 조용히, 손끝으로 바람이라도 덮어주듯 <동생> 인형은 그대로 비워뒀다. 그 인형엔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

“없던 사람이..”

“어쩌다 기억 속에만 생겼을까.”

벽시계는 자정을 넘겼다. 그 순간, 누군가 이소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이소.”

소리는 집 안 어디서도 나지 않았다. 바로 귓속에서 들렸다.

3장,
부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이소.

이름이 불린 건 분명했지만, 어느 쪽에서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방 안엔 분명 종이만 가득했고, 창밖은 조용했다.

이소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

“..이소.”

낮게 떨리는 목소리.

그 이름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위탁 가정마다 부르던 이름이 달랐다. ‘소리’. ‘소정’. ‘재

이’ 혹은 그냥 ‘애’. 서류상 이름은 ‘이소’였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름은 언제나 누군가가 정하고, 누군가가 지웠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눈물이 났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나’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종이인형들 위로 천천히 눈물이 떨어졌다. 번진다. 색연필 선이, 얼굴이, 이름이.

“이소야”

이번에는, 정말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종이인형 하나가, 천천히 퍼졌다.

『첩』 - 지워진 집의 기록

그저, 집 안에서 자라는 첩인 줄 알았다.
그것은, 기대를 저버린 미련함이었다.

prolog.

누가 처음부터 심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담벼락 틈,
쓰러진 기둥 밑,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창고 뒷편.
천천히, 조용히.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이 사라졌다.

철거를 나선 이들은 말 없이 벽을 뜯었고, 그 안에
서 무엇이 나왔는지는 아무 기록도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집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그래도 그 여자는 끝까지 안 나왔지.”

그 여자의 이름은 윤미였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마지막 밤. 그리고 철거 다음
날 새벽, 무너진 잣더미 위에, 칙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1장, 침이 피는 자리.

AM 05:00

집 안은 어둡다. 전기는 끊긴 지 꽤 오래 되었다. 윤미는 익숙하게 손 끝을 더듬대며 라이터를 찾았다. 익숙한 감촉, 딸깍. 불빛 하나가 작게 일렁인다. 그 불빛 너머 벽을 타고 들어온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침이다.

이건 어제 분명 잘랐던 놈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덩굴을 올려다봤다. 손바닥만한 창 위로 침이 스멀스멀 자라 있었다. 그건 꼭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벽을 더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 거 참 지독하네..”

윤미는 바닥에 놓인 가위를 집었다. 손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칩은 자르지 않기로 했다. 창문 너머 칩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다.

폐지 수레가 놓인 문간, 오늘도 산을 내려가야 한다. 그녀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다른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삐걱대는 철문 틈으로 철거 통보서가 윤미의 얼굴을 덮쳤다.

‘관악구 달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안내 - 7월 1일 철거 예정’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언덕을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조용했다. 새벽 6시 전 이 동네에는 살아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었다.

윤미는 발끝으로 익숙하게 물웅덩이를 피하고, 길가의 쓰레기통부들을 넘었다. 수레에서 삐걱거리는 쇠소리가 골목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때, 플래시가 터졌다. 순간적으로 윤미는 수레를 멈췄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봤다.

골목 입구,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찍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역광 조정하다가..”

남자는 어정쩡한 자세로 웃으며 말했다. 윤미는 말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수레를 옆으로 밀뿐이었다. 길을 비켜주는 동작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였다.

“여기 주민이세요?”

그 말에 윤미는 걸음을 멈췄다.

“...”

“주민이면 어찌고, 아니면 또 어쩔건데?”

말투는 통명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아, 그냥..”

"대학교 과제로 영상 만들고 있어서요.."

"이 지역 재개발 전에, 주민들 삶 같은 거 기록."

남자가 카메라를 슬쩍 내렸다.

"이런 말 실례일 수 있지만.."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윤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카메라, 그 뒤에 선 얼굴. 너무 맑았다. 너무 멀었다.

"기록이란 게 말이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누가 쓰느냐보다.."

"누굴 지우느냐가 더 중요해."

그리고 수레를 다시 밀기 시작했다. 진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셔터를 누르길 포기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담벼락을 올려다 봤다.

그 위로 뻗어 있는 덩굴, 칙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덩굴이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았다. 윤미는 천천히 수레를 다시 끌고 언덕을 올랐다. 햇살은 아직 골목 끝까지

도달 하지 않았고, 지붕위엔 서늘한 바람만 불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틈으로 낫선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이었다.

밤새 더 자란 모양이었다. 창고 벽 틈 사이로 들어온 덩굴이 안쪽 가재 도구에 닿아 있었다. 작은 부엌 찬장, 오래된 TV 안테나, 그리고 남동생의 낡은 옷걸이까지.

윤미는 말없이 그 덩굴을 손으로 잡았다. 뽑지 않았다는 감촉.

그 순간, 뭔가— 아주 작게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집 안 깊숙한 어딘가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고 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마치 이리로 들어오라는 듯.

윤미는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응시했다. 침의 잎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천천히 기어 나오는 중이었다. 그곳은 수 년간 아무도 열지 않았던 창고였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컵라면 뚜껑을 덮어두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촬영한 화면을 재생하며 확인하던 중, 윤미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이는 장면, 무거운 수레를 끌며 언덕을 내려오는 그 뒷모습, 그는 창을 키우고 프레임을 일시 정지했다.

화면 속 담벼락.

거기 그때는 없었던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프레임을 뒤로, 앞으로 다시 넘겼다.

확실했다.

칩 덩굴이 두 장면 사이 단 몇 초 만에 에 자라 있었다. 진수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에이.. 이게 말이 되나..?’

2장,

뿌리를 뽑으세요.

창고 문은 벌어진 채로 밤을 맞았다. 윤미는 그 문을 등지고 자리에 누웠다. TV는 안 나오고, 냉장고는 멈춘 지 오래였다. 전깃줄엔 칩덩굴이 감겨 있었다.

‘뿌리를 뽑으세요’

철거 통지문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을, 이 땅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누가,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윤미는 눈을 감고 창고 안을 떠올렸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잊은 줄 알았던 것들.

잊고 싶었던 것들.

아이의 신발, 녹슨 자전거, 그리고.. 땅에 묻은 이름 없는 무언가. 칩은 그것들을 다 덮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라면서 기억을 덮는 식물.

그녀는 그날 밤, 창고 문을 닫지 않았다.

"칩, 식물, 독성, 기생, 무속.."

검색창에 단어들을 적어 넣는 손이 멈췄다.

진수는 여러 페이지를 재빠르게 넘기다가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를 하나 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달동, 철거 예정 지역서 연쇄 실종」 본문 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주민 A씨는 ‘그 담벼락은 몇 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누가 자꾸 사라졌죠’라고 증언했다”

진수는 마우스를 멈췄다. 화면 속 사진에는 흐릿하게 윤미의 집이 찍혀 있었고, 낮익은 칩이 손을 뻗고 있었다.

지붕 위에 영겨 있는 검은 잎의 덩굴,

지금보다 훨씬 더 짙고 굵은 칙이었다.

그는 영상 카메라를 다시 켜다. 윤미의 음성만 녹음된 인터뷰가 저장 돼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죠,”

“근데 말예요. 사람만 나가면 뭐해요.”

“기억이 안 나가는데.”

창고 문이 열린다. 윤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바닥에는 흙과 먼지가 뒤엉켜있고, 벽은 물자국과 곰팡이로 변들거린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무너진 상자.

거기서 칙이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고 있다.

벽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상자 안에서—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처럼.

3장, 자르지 말 것.

윤미는 창고에 칙이 자라는 걸 처음 본 게 아니다.
처음은 10년 전이었다.

아이가 사라진 해. 마당을 뒤지던 그녀는 그때 그 상자를 발견했다.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없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 빈 상자에서 자라난 첫 잎이— 칙이었다.

지금 그녀는 그 덩굴을 자르려 가위를 들고 있다.
칙은 저항하지 않는다.

자르려는 순간, 벽 너머에서 또각— 소리가 났다.

대신, 현관 문 옆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신발 한 짝.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신발을 들고, 다시 창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가위를 내려놓는다.

4장,

기록된 자와 지워진 자.

진수는 미친듯이 자료를 뒤지고 있다. 오래된 주민센터 민원기록. 사라진 세대주의 이름들. 거기 ‘이윤미 - 남동생 실종 후 장기 미출석’ 그는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음을 직감한다.

첩, 창고. 상자.

진수는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도착한 그 자리에 집은 없다. 철거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진수는 무너진 잣더미 속에서 카메라를 꺼낸다.

그가 마지막으로 찍은 영상.

윤미의 실루엣 뒤, 창고 안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천천히 일어나는 장면이 있다. 그 영상 속, 그림자는 얼굴이 없다.

대신 칙 덩굴처럼 길게, 흔들리는 머리카락만 있었다.

5장,

칩은 어디서든 자란다.

몇 주 후, 그 자리는 공원으로 바뀌었다. 새로 심은 잔디와 벤치, 진수는 마지막 영상물을 제출했다.

제목: 『지워진 자의 집』

영상 마지막 장면, 드론 카메라가 폐허 위를 비춘다. 그리고, 화면 구석, 부서진 시멘트 틈.

그곳에서— 칩이 자라고 있다.

단 한 줄기, 하지만 뿌리는 이미, 깊다. 아무도 그 뿌리를 보지 못했다.

『오늘 살아 있다』 - 매일.

“살아 있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을
계속 이어 쓰는 일.”

프롤로그

우리는 몰랐다. 그가 남긴 말들이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누군가는 노트를 남기고 사라졌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 묻혔다.

우리는 잠깐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뿐인데 세상은 너무 조용하게 한 사람을 지웠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계속되는 아침, 반복되는 뉴스, 그리고 또 한 번의 ‘익숙한 하루’.

하지만, 그 노트를 읽은 날 나는 처음으로 멈춰 섰다. 그토록 지겹던 오늘이 사실은 기적이었음을 이토록 늦게야 알게 되었다.

“살아 있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을 계속 이어 쓰는 일.”

1장,
오늘은 어제의 기적이었다.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챙겼다. 그리고 보니, 그날도 그랬다. 일기 예보에는 없던 비가 내렸고, 우린 우산이 없었다. 편의점 문을 나서던 순간, 그녀가 그랬다.

“내일 비 온대요?”

나는 대충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언제부턴가 내겐 ‘혹시 몰라서’가 늘었다. 혹시 몰라서 현금을 챙기고,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지우

지 못하고, 혹시 몰라서 그녀의 다이어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노트 한 권.

커피 얼룩이 번져 있는 표지.

그 안엔 수많은 오늘이 적혀 있다.

소소한 불만,

자잘한 기쁨,

다신 돌아오지 않을 일상의 조각들.

‘아침에 빵을 태웠다.’

‘버터는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별것 아닌 이 한 줄이 왜 이렇게 아프게 박히는 걸까.

그녀는 죽었고, 나는 살아 있다. 그 사실이 오늘을 버티게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2장.

오늘은 어제의 기적이었다2

“우유 마셨어요?”

“아니요. 어제 다 마셨어요.”

“아. 괜찮아요.”

“내일 사 올게요.”

“괜찮다니까요.”

“...”

그날의 대화는 너무 평범해서, 도무지 마지막 같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
헐렁한 슬리퍼 끄는 소리,
냉장고 문이 덜컥 닫히던 그 아침의 풍경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았다.

아무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 기억도, 예감도 없이 그저 흘러간 하루.

그날 그녀는 일기장을 쓰지 않았다. 적어도, 살아서 남긴 마지막 페이지엔 ‘잘 자요. 내일 봐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약간 삐뚤어진 하트 모양.

그 하트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이모티콘이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일기장을 매일 펼쳤다.

마치 거기서 그녀가 다시 말을 걸어줄 것처럼.

‘오늘은 햇빛이 좋았어요.’ ‘배가 좀 고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잤어요.’ ‘마음이 살짝 울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왜 이렇게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걸까. 어떤 하루는 한 사람이 전부를 걸고 버틴 날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날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다면, 그건 누군가의 기적이 무심히 지나쳐간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양파』 - 울 줄도 모르면서요

울 줄 모르는 교생과
감정을 꺾어 삼켜온 아이,
서로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감정을 알아간 시간.

prolog

팔뚝에는 곱이 있다.

가장 바깥의 피부, 그 아래의 진피, 그 아래의 상처, 그리고 더 아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울면서 양파를 썬다.

나는, 울지 않고 썰어왔다.

그걸 자해라고 부를 수도, 해소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냥, 소매 아래 감춰진 감정이었다.

“선생님 울 줄도 모르면서요.”

그 말이, 내 마지막 껍질을 벗겼다.

1장, 소매 아래의 것들.

AM 07 : 50

서연은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하나 더 잠갔다.
봄인데도 긴 소매, 손등을 반쯤 덮는 커프스.

‘오늘도 잘 감춰졌네’

속으로 중얼한 뒤, 화장을 한다.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감정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첫 수업은 2-2반, 국어수업

교무실에 들어서자, 정교사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들이 오갔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나에게 쏘리는 시선.

“서연쌤, 오늘도 단정 그 자체~”

“조선시대 온 줄~”

“오늘 교무회의 갑시다!!”

서연은 웃는 시늉을 했다. 웃음은 입가에만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뚝을 스쳤다. 거기, 오래된 자해 흔적이 있다.

휴터와 새살의 중간 어딘가.

그리고 그 휴터는 가끔 —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복도 끝, 교실 앞에 멈추었을 때 안쪽에서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 순간, 문 틈으로 한 학생이 서연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마주친 시선, 아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유 없이 당황했고, 다시 왼손의 소매를 더 끌어내렸다. 그 학생은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2장, 눈물샘의 위치.

“선생님은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칠판을 정리하다 말고, 서연은 몸을 멈췄다. 질문을 던진 건 아까 눈이 마주친 그 아이였다. 교실 맨 뒤 창가 자리, 정적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감정이 없다고 느껴질만큼 건조하고 낮았다. 서연은 무의식중에 팔을 뒤로 감췄다. 그리고 되묻는다.

“너는?”

“넌 화나면 어떻게 해?”

아이는 천 장을 한 번 바라보다, 다시 서연을 본다.

“저는요, 어릴 땐 벽을 쳤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화는 어디로 가?”

아이는 입 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말했다.

“안 가요.”

“그냥, 안으로 꺾여요”

순간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 말에 피부가 뼈근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쓴 글을 몰래 훑쳐 읽은 것 같은 느낌, 아이는 이어 말했다.

“선생님, 울 줄 모르시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 전 응급실 침대에서 간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울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울 줄은 아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들려오는 아이 목소리.

“눈물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서연은 자신이 평생 피했던 ‘그 위치’를 아주 처음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3장,

껍질 아래 숨겨진 날씨.

“눈물샘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눈꺼풀은 무거운 데, 감정은 어디간 벌거 벗겨진 채 서있었다.

‘내 눈물샘은 어디쯤일까?’

‘눈의 가장 안쪽?’

‘아니면,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어릴 적 겨울방학이었다.

엄마는 생일선물이라며, 플라스틱 양파 인형을 사줬다. 양파를 까면, 안에서 또 다른 양파 인형이 나왔다. 서연은 가장 안쪽 인형에 몰래 이름을 붙

였다.

‘슬픔’

그 인형은 울지 않았다. 그냥, 마지막까지 벗겨지지 않기를 바랐다.

10대 시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앉아 있던 기억이 있다.

팔에 자를 갖다 댈 때마다 마치 감정이 흘러 나오는 듯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흘러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이었다. 마치 자기를 향해 꺾인 감정들이 거꾸집이 되어버린 듯.

그걸 세상은 자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치료라고 불렀으며, 또 다른 좋은 말로 성장이라고도 불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울 줄 몰랐다.

학교 복도 끝,

그 학생과 다시 마주친 날.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날의 ‘슬픔’인형이 똑— 하고 깨졌다.

그리고 서연은, 오래 전 누르기만 했던 눈가를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눌러 보았다. 거기, 아주 오래 숨겨둔 ‘날씨’가 있었다. 우는 법을 잊은 자의 첫 장마였다.

4장,
다 벗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과 후, 교무실은 한산했고, 창밖엔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그 학생은 말없이 서연 앞에 작은 종이 상자를 올려놨다.

“뭐야?”

“양파예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아이는 덧 붙인다.

“비 올 땐 울어도 괜찮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눈물이 티 안 나니까.”

서연은 그 말에 입술을 꼭 다물었다. 양파 껍질

을 벗기다 말고 조용히 멈춘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단지, 가방에 넣었다. 아이는 묻지 않았다.

“왜 안 열어요?”

그런 질문도, 어떤 미사여구도 붙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고 앉아 한참 동안 상자 속 양파를 꺼내지 않은 채 손끝으로 천천히 종이 상자를 쓰다듬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처음으로, 울 수 있을 것 같은 밤이었다.

‘다 벗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꼭 누가 와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아이에게 수업이 끝나고 남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천천히 벗기지 않고 알아갔다.

『난 익사 중』 - 넌 말해, 물을.

숨 쉬는 법을 몰랐던 나.

넌 말해, 물을. 난 말 못해, 나를..

prolog

물은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다.

어릴 적, 욕조에서 두 팔을 가만히 뻗고,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던 날이 있었다. 물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말 대신 물 속에서 산다.

‘말하면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더 깊이 가라앉았나’

누군가는 나를 보고 헤엄친다 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빠진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물과 친하면,”

"언젠가 물이 너를 살려주겠지."

하지만 물은 단 한번도 나를 살리려 한 적이 없었다. 그건 숨을 쉬지 못해 본 적 없는 자의 말이었다.

숨이 찬게 아니라, 내 안의 공기들이 모두 고장난 것이었다. 입을 열면 물이 들어오고, 침묵하면 마음이 썩어갔다. 그리고 너는 말했다.

"넌 왜 물을 말하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물은 말이 아니었고, 말은 나를 떠나간 모든 것의 그림자였다.

이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소리 내지 못한 감정,

울음 대신 삼켜야 했던 밤.

그리고 물 속에서 조차 끝내 입을 다물던,

누군가의 기록이다.

1장, 물의 무게.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꺼낸다.

익숙하게, 자동화 기계처럼.

이 말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가라앉게 만든다. 가끔 생각한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더 깊이 빠뜨리는 게 아닐까.

회사 동료는 내게 ‘조용해서 좋아요’라고 말하고, 친구는 ‘무던하다’며 웃는다. 엄마는 한숨을 쉰다.

“넌 원래 그런 아이였지.”

나는 정말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이게 나인 줄 착각하게 된 걸까.

밤이 되면, 방 안은 조용하다. 말을 꺼낼 사람이 없고, 들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자주 물을 튼다.

세면대, 욕조, 샤워기

쏟아지는 물소리는 내가 삼킨 말들과 너무 닮아 있다. 넘치지도 못하고, 사라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도는 소리.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너 요즘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욕조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물은 따뜻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차가웠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그 안에 잠겨 있었다.

2장, 말이 부딪힌 날.

“선배 요즘 좀 이상해요.”

막내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대화의 맥락은 사소했다. ‘요즘 너무 조용하다’는 식의 농담. 하지만 그 말은 물속 어딘가에 닿았다.

꽤 깊은 곳.

말 한 마디가 이토록 무겁게 가라앉을 줄은 몰랐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나뿐이 아니었구나. 아니, 그들이 느끼는 ‘이상함’은 내가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할 만큼 멀었다. 피부 색도, 눈빛도, 미간도 내가 아닌 ‘나’ 같지 않았다.

그날, 나는 퇴근하지 않고 근처 만화방에 들렀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책장 한 칸, 낡은 만화책 표지에 쓰인 글자가 나를 멈춰 세웠다.

“난 살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을 뿐이야.”

순간, 눈 앞이 잠깐 아득해졌다.

물속에서 눈을 뜬 듯한 기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칸막이 좌석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 거렸다.

‘나도………… 그래’

그 말은, 정말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나온 내 진심이였다. 숨을 들이켜야 했고, 목이 마르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건, 분명히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3장, 조용한 파문.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덜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눈가, 붓지 않은 입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는 눈동자.

누가보면 모르겠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안에서 ‘파문’이 돌고 있다는 걸.

회사에 도착하자, 팀장은 습관처럼 물었다.

“요즘 컨디션 괜찮아?”

나는 습관처럼 ‘네’라고 대답할 뻔 했다. 하지만,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한 박자 늦게,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게.

그 한 번의 ‘아니오’는 물 속에서 날 부유시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내가 피곤한 줄 알았다.

어느 누구도 “왜?”라고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만은 알았다. 말을 멈추는 것과 말을 삼키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입을 닫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쓰는 작고 조용한 구조 요청.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닌, 그저 나에게 하는 다짐 같은 말.

그 문장을 적는 동안, 나는 익사 중이었다.

하지만, 조금은 물 위로 향하고 있었다.

4장, 물 위에서.

퇴근 후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내렸다. 그냥..
걷고 싶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달달한 우유
하나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옆에서 엄마가 아이
를 향해 눈을 맞춰주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괜찮아, 울어도 돼.”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단순한 한마디 말, 넘어진 아이에게 엄마가 무릎
을 털어주면서 건네던 말, 매번 듣던 말이었는데,
단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와 닿은 말.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며칠 전 적어둔 메모를 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적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말할 거야.’

‘괜찮아, 울어도 돼.’라고.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가슴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불씨 같은 온기.

그때 한 통의 메세지가 도착했다. 며칠 전 회사 후배가 보냈던 답장 없이 읽기만 했던 메세지.

“선배, 요즘 괜찮아요?”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썼다. 거창한 말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걸치레인 말도 아니었다.

“고마워, 나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전송을 누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물이 내 턱 끝까지 차올랐던 그날들에서 나는 이제 조금씩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좋아요를 위한 장례식』

prolog

그날, 하루 종일 DarkTUBE 인급동을 떠다닌 15초짜리 영상.

“이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슬프지만, 뭔가 감성터진다!”

손목이 떨리는 카메라,
무표정한 눈동자,
문득 멈춰 선 다리, 지는 노을.

어딘가를 바라보던 그의 마지막 0.5초

그건 마지막이었을지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슬로우모션으로 돌리고, Lo-fi 음악을
입혀, “대박~ 찐 감성”이라며 댓글을 달았다.

그의 절규는 음소거 됐다.

그의 죽음은 예쁘게 편집됐다.

그의 존재는 좋아요 버튼 속에서

끝없는 재생을 반복했다.

만약 정말 그게 그의 마지막 영상이었다면, 그게
너였다면, 넌, 괜찮을 수 있을까?

감성, 그건 가장 덧없는 것,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는 그러나 가장 쉽게 버리는 포장지.

1장,
촬영본은 따로 없어요.

그날은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흐린 오후였다. ‘이 정도면 감성 나오겠다’며, 그는 천천히 삼각대를 펼쳤다. 손에 든 건 낡은 스마트폰, 케이스는 몇 번이나 떨어진 듯 깨져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웃고 있었다. 아니, 웃고 있는 척이었다.

“여기서 딱 정면 보고!”

“그 다음엔 고개를 살짝 돌리면 되겠다.”

셀프 연출.

셀프 촬영.

셀프 조명.

셀프 편집.

그리고 셀프 사라짐.

그 영상 속 그는 말이 없었다. 느리게 걸었고, 의미 없이 머리를 흔들었고, 해질녘 강가에 멈춰 서서 바람을 맞았다. 카메라는 그를 예쁘게 담았다. 흐린 하늘, 갈대밭, 약간 휘청이는 실루엣. 누가 봐도 ‘감성 영상’으로 완벽했다.

단지,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촬영은 단 3분.

그는 그 중 15초만 썼다.

나머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영상이 올라온 시각은 오후 6시 38분.

댓글 첫 번째는..

“와 진짜 예쁘다. 편집 천재..”

두 번째는

“감성 미쳤다.. 어디서 찍었나요?”

그의 계정은, 다시는 로그인되지 않았다.

2장,

댓글은 살아 있고, 그는 없다.

그의 영상은, 일주일 만에 백만 뷰를 넘겼다.

“진짜 이런 감성 요즘 드물다”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얼굴 열일~ 잘 생겼어요~”

“이 사람 누구죠? 다음 영상 더 없나요?”

그는 없는데, 그에 대한 콘텐츠는 자랐다. 어떤 사람은 반쯤 뜬 눈으로 리액션 영상을 올렸고,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슬픈지 분석해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그의 얼굴을 걸었다.

#좋아요

#눈물주의

#마음한켠이먹먹해지는영상

#감성끝판왕

사람들은 ‘먹먹함’을 팔아 좋아요를 얻었다. 하트는 하루에 수천 개씩 쌓였고, 그에 대한 알고리즘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어떤 날은 ‘그 영상’ 위에 광고가 붙었다. 생명보험 광고였다. 영상은 살아 있었다. 댓글은 살아 있었다. 해시태그는 춤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물었지만, 정작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3장,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댓글 3,284개.

그 밑에, 익숙한 이름이 조용히 눌러 앉았다.

@d_____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한 문장.

반응은 없었다. 처음엔 그냥 그런 대댓글 중 하나로 묻혔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스크린샷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 “헐, 진짜였어?”

… “이거 실화인가요?”

… “아무도 몰랐는데..”

… “와, 갑자기 영상 다시 보니까 다르게 보여..”

누군가는 그 문장을 배경으로 감성적인 음악을 깔고 ‘짧은 릴스 영상’을 만들었다.

좋아요 3만, 공유 1.2천.

그의 죽음은 ‘소비 가능한 감정’으로 완성되었다. 슬픔은 편집되었고, 침묵은 자막으로 정리되었으며, 진심은 조회수 속에서 기획되었다.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그 문장을 쓴 사람도, 그날 이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4장,

그날 우리는 찍고 있었다.

“형, 여기 카메라 각 너무 좋아요.”

“딱 눈빛 잡히는 그 순간, 진짜 울컥하거든요.”

그는 웃었다.

“울컥하긴.. 나, 안 울어.”

“요즘엔 감정도 안 나와.”

그러곤,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피곤이 내려앉은 눈동자와 붓기 가지지 않은 입술, 화면 안의 자신을 조용히 응시했다,

“이거 찍고 나면 자러 가야지.”

우리는 웃으며 끄덕였다. 그 말이 진짜가 될 줄 몰

랐다. 그날의 영상은 짧았다. 늘 그렇듯, 감성적인 오프닝. 흐릿한 조명, 조용한 음악.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편집되지 않았다. 울컥도 없었고, 음악도 끊겼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촬영 중단.

우리도 말이 없었다. 그저 그가 말없이 떠난 것을 카메라 속에만 남겨두었다.

며칠 뒤, 그 영상을 우리가 올렸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이 그를 두 번 죽였다. 우리는 좋아요를 바

라보며 슬픔을 캡션했고, 그의 고요를 썸네일로
잘라냈다. 그 영상은 여전히 올라가 있다.

그렇게,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끝내 아무도 듣지 못했다.

단면의 일곱번째 편, 광복절 특집

이름 잃을 별

기록되지 못한 죽음도, 독립을 만들었다

뒷면에 계속.. >>

프롤로그.

1919년 3월, 종로 거리,
누군가 태극기를 들었다.
“대한 독립 만세!”
경찰 기록에는 수백 개의 이름만 남았다.
그리고, 수천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들은 죽었고, 지워졌고, 잊혔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죽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만들었다.

1장, 집 앞에 쌀.

1919년 봄, 만세 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다. 종로부터 용산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마을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이름 모를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는 잡혀갔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찻먹이를 업은 아내만이 집에 남았다. 그날 밤, 아이는 젖을 물다 울음을 그쳤다. 젖이 나오지 않았다. 굶주림이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대문 앞에 작은 바가지가 놓여 있었

다.

쌀 두 뒷박.

누가 두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웃집 할머니 일 수도, 장터의 쌀 장수일 수도, 아니면 만세에 함께 나섰던 다른 이였을 수도 있다.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새벽 바람이 골목을 스칠 무렵, 문 앞에는 늘 같은 양의 쌀이 놓였다. 쌀은 아이의 죽음을 막았고, 아내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아내는 그 쌀을 불에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누군가의 손길은 남아 있구나.”

그녀는 그 손길 덕분에 버텼다. 작은 쌀알이 쌓여 밥이 되었듯, 이름 없는 연대가 모여 하루를 이어 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 울음은 마치 말 없는 약속 같았다. 언젠가 이 집 대문 앞에 쌀 대신 태극기가 걸릴 날이 올 거라는..

2장, 형무소의 공기.

서대문형무소의 공기는 눅눅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에서 낮과 밤의 구분은 간수의 발소리로만 알 수 있었다.

청년의 몸은 고문으로 부서져 갔다. 손톱이 뽑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그러나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은 수천 명 중 하나다.”

“입만 열면 살아 나갈 수 있어.”

일본 순사가 고개를 숙여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청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이름이 불러 나간다면, 함께 태극기를 만들던 사람들, 밤마다 몰래 전단을 뿌리던 학생들, 쌀을 나눠주던 노인들까지 모두 잡혀갈 터였다.

살이 썩고, 숨이 짧아지고, 입술이 터져 더 이상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는 두 달을 버텼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형무소의 이슬로 사라졌다.

형무소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 옥사자 명단에, 묘비에도 없었다.

다만, 함께 갇혔던 또 다른 청년의 증언이 전해졌다.

“그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시 태극기를 들 수 있도록..”

“그는 입을 다물고 죽었습니다.”

그 말조차 훗날 기록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 하지만 차가운 형무소 공기 속에서 그가 남긴 침묵은 누군가의 심장에 오래도록 새겨졌다.

3장, 마지막 쪽지.

형무소의 벽은 차갑고 두꺼웠지만, 어떤 마음은 그 벽을 넘어갔다.

청년이 사라진 지 며칠 후, 아내의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다. 그 위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찢긴 종이의 반쪽, 먹물이 번져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 그의 손글씨였다.

“나는 끝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 침묵이 너와 아이를 살릴 것이다.”

짧은 문장들이 끊기듯 이어져 있었다. 마지막엔 힘이 다 빠진 듯, 획이 아래로 흘러내렸다.

“살아서 날 원망해라.”

“욕해도 좋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독립을 보아라.”

그리고, 종이 맨 아래, 흐릿하게 적힌 한 문장.

“대한은 반드시 독립한다.”

아내는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울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편지는 오래도록 숨겨졌다. 외부에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은 아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아이에게 이어진 세월 속에서 조용히 전해졌다.

4장, 사라진 이름들.

세월은 흘렀다. 해방이 찾아왔고, 광장은 다시 만
세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고, 곳곳에 태극기가 걸렸다.

하지만 그 자리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공식 유공자 명단에도 없었고, 교과서에도, 신문
기사에도 실리지 않았다. 서대문형무소 기록은 불
완전했고, 죽음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역사의 뒤편길에서 지워져 갔다.

아내는 늙어 갔고, 아이는 성장했다. 쌀 두 뒷박

을 놓고 갔던 이웃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작은 쪽지는 남아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 흔적처럼 남은 글씨 한 줄.

“대한은 반드시 독립한다.”

그 문장은, 후손이 가슴에 품은 유일한 증언이었다. 우리는 그의 무덤을 모른다. 그의 초상화도 없다. 그가 어떤 목소리로 노래했는지, 어떤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기록되지 못한 수 천의 이름이,

오늘의 하루를 만들었다는 것을.

Epilogue.

우리는 기억하고 배운다. 유명한 몇 몇의 이름만을, 교과서에 실린 얼굴들, 동상으로 남은 영웅들을 하지만 역사는 기록되지 못한 수 많은 이름 위에서 자랐다.

집 앞에 놓인 쌀 두 뿔박,
형무소의 침묵,
찢긴 쪽지의 마지막 한 줄.

그 작은 흔적들이 오늘의 자유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가,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오늘 속에 숨 쉬고 있다.

“기록되지 못한 죽음도, 독립을 만들었다.”